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2023. 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3년도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I 연수 개요

□ 연수목적 및 방문기관

- (목적)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국내교육 및 선진연구기관 현지방문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 발전,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 배양 등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
- (방문기관) 미국 서부* 소재 연구기관 및 연구자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디에이고(San Diego)

1)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IEPR)

관련 사이트	https://siepr.stanford.edu/
연락처	John A. and Cynthia Fry Gunn Building 366 Galvez Street Stanford, CA 94305-6015 Phone : (650) 497-1712 Email : sgembala@stanford.edu

2)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akar Labs"

관련 사이트	https://bakarlabs.berkeley.edu/
연락처	Bakar Labs University of California 2630 Bancroft Way Berkeley, CA 94720 Email : bakarlabs@berkeley.edu

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관련 사이트	https://dornsife.usc.edu/ksi/about-us/
연락처	809 W 34th St., Los Angeles, CA. 90089 (213) 740-3758 Email : ksi@usc.edu

4) University of San Diego prof. "Steph Haggard"

관련 사이트	https://gps.ucsd.edu/faculty-directory/stephan-haggard.html
연락처	RBC #1425 9500 Gilman Dr. #0519 La Jolla , California 92093-0519 Phone : (858) 534-5781 Email : shaggard@ucsd.edu

□ 연수기간 : 2023. 11. 6.[월] ~ 2023. 11. 14.[화] (7박9일)

○ 세부일정

일 자	국 가	일 정(안)	비 고
11.06.(월) <1일차>	인천 미국	[출국] 인천 → 샌프란시스코	항 공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및 토론내용 정리 등	전용차량
		[회의]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07.(화) <2일차>	미국	[기관방문]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전용차량
		[기관방문] 버클리 대학 내 창업 연구소 "Bakar Labs"	
		[회의]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11.08.(수) <3일차>	미국	[단순견학] 실리콘 벨리 내 구글,애플,메타 등	전용차량
		[이동] 샌프란시스코 - 로스엔젤레스 (약 7시간)	
		[회의]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09.(목) <4일차>	미국	[기관방문] USC 대학 " USC Korean Studies Institute"	전용차량
		[회의]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10.(금) <5일차>	미국	[이동] 로스엔젤레스 - 샌디에고 (약 2시간)	전용차량
		[기관방문] University of San Diego	
		[회의] 방문기관 간담회 결과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11.(토) <6일차>	미국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및 토론내용 정리 등	전용차량
		[회의] 주요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12.(일) <7일차>	미국	[중간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및 토론내용 정리 등	전용차량
		[회의] 주요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토론 등	
		[이동] 숙소 이동 및 휴식	
11.13.(월) <8일차>	미국	[최종점검회의] 방문기관 자료 최종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논의	
		[입국] 로스엔젤레스 → 인천	항 공
11.14.(화) <9일차>	인천	[입국] 인천	

□ 연수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우수직원 (27명)

NO.	기관명	성명	직급	비고
합계		총 27명 (남 11명, 여 16명)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장익상	전문위원	단장
2		여지인	전문위원	부단장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성대	선임행정원	
4	국토연구원	이은혜	3급행정원	
5		이새별	3급행정원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미선	선임행정원	
7	산업연구원	신윤성	연구위원	
8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화정	선임행정원	
9		박한범	선임행정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준섭	선임행정원	
11	한국개발연구원	신정자	선임행정원	
12		조용래	재무팀장	
13	한국교육개발원	김성공	선임행정원	
14	한국교통연구원	이시연	선임행정원	
15		김미림	행정원	
16	한국노동연구원	민경내	행정원1급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혜진	선임주무원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지완	선임행정원	
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현	책임연구원	
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지수	선임행정원	
21		서귀분	책임업무원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주상	책임행정원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란미	전문사무원	
2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혜정	선임행정원	
25	한국환경연구원	김지현	선임전문원	
26	건축공간연구원	박기석	책임행정원	
27	육아정책연구소	김호동	선임행정원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IEPR)

① 방문개요

- (방문목적) 다양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의 연구경향과 아이디어,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연구소의 운영방식과 성과,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비전 등을 경험하고자 함.
- (방문일정) 2023. 11. 7.(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실
- (참석자) 총 28명
 - (연수단) 장익상 단장 외 26명
 - (면담자) Ph.D. Ege Y. Ercan

② 기관소개

- (설립연도) 1982년~
- (구성) 현재 Mark Duggan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John Shoven 교수가 명예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00명의 교수진과 40여명의 연구원, 그리고 20여명의 관리직원으로 구성
- (운영)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과 학장의 감독 및 이사회, 과학자문위원회 등의 지도하에 운영되나, 교과과정과 별개로 운영되고, 학부·대학원·타 연구소 등과 협력

- (주요기능) 12개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입안자와 공공기관에 자문 제공, 국제문제 전문 학자와 미래지도자 양성
- 캘리포니아의 경제정책, 디지털 경제, 환경과 에너지 정책, 중국경제와 제도, 글로벌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정책보고서와 워킹 페이퍼 발간을 통해 정책 토론과 결정 과정을 지원

no	구분	내용
1	교육	교육의 품질과 접근성, 교육의 경제적 효과, 교육의 재정적 측면, 교육의 사회적 측면, 교육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에너지의 가격과 세금, 에너지의 환경적 영향, 에너지의 보안과 안전, 에너지의 혁신과 기술, 에너지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3	글로벌 개발과 무역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 세계의 경제성장과 발전, 세계의 무역과 통합, 세계의 금융과 통화, 세계의 거버넌스와 제도, 세계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4	보건	보건의 품질과 접근성, 보건의 비용과 효율성, 보건의 보험과 보장, 보건의 혁신과 기술, 보건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5	주택과 인프라	주택의 공급과 수요, 주택의 가격과 세금, 주택의 재정적 측면, 주택의 사회적 측면, 주택의 규제와 정책, 인프라의 투자와 유지, 인프라의 환경적 영향, 인프라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6	불평등	미국과 세계의 소득과 재산의 분포,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불평등의 측정과 평가, 불평등의 완화와 개선, 불평등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7	혁신과 기술	혁신과 기술의 공급과 수요, 혁신과 기술의 경제적 효과, 혁신과 기술의 사회적 영향, 혁신과 기술의 재정적 측면, 혁신과 기술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8	화폐와 금융	화폐와 금융의 공급과 수요, 화폐와 금융의 가격과 세금, 화폐와 금융의 안정성과 위기, 화폐와 금융의 혁신과 기술, 화폐와 금융의 규제와 정책 등에 관한 연구
9	정치와 미디어	미디어 시장이 작동하고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 로비 활동이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 정책 실행을 유발하는 요인, 정치적 부패, 정치와 미디어가 미국과 주변 지역의 사회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10	규제와 경쟁	규제와 경쟁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연구, 규제의 목적과 방법, 경쟁의 조건과 결과, 규제와 경쟁의 균형과 조정, 규제와 경쟁의 혁신과 발전 등에 관한 연구

no	구분	내용
11	세금과 공공 지출	세금과 공공 지출의 원리와 실무,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세금의 설계와 징수, 공공 지출의 계획과 실행, 세금과 공공 지출의 효과와 평가, 세금과 공공 지출의 개선과 개혁 등에 대한 연구
12	노동	노동의 공급과 수요, 가격과 가치, 조직과 정책 등에 관한 연구, 노동 시장의 동태와 구조, 노동의 생산성과 보상, 노동의 다양성과 차별, 노동의 권리와 복지 등에 관한 연구

3 주요 논의내용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정책방향
 - 다수의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현재의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내년 대선시기 전후로 금리 조정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독립성
 - 정부부처나 정부출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FED 역시 다른 단체를 통한 펀딩이나 기부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주된 연구분야가 기업분석 및 투자정책으로 보이는데, 주목받고 있는 기업현황과 기업별 펀드 투자 및 회수기간
 - 미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콘텐츠(주식, 심리컨설팅 등)를 개발하는 회사가 각광 받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진행됨. 기업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만일 투자자가 빠른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보다 큰 기업으로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활용 중.
- 미국 중심 경제정책의 효과성
 - 실제 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 중이나, 최근의 연구결과를 볼 때 미국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는 보기 어려움. 다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미국 중심의 경제우위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대선 등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치적인 이슈발생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 미국대선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0개월이 지나야 그 효과가 검증될 것으로 보임.
-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 관련 연구와 최근 경향
 - 미·중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경제나 기업, 규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소 내 방문학자 등 중국 정부를 통한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스탠포드 경제정책연구소 방문현장>



① 방문개요

- (방문목적) 기술 개발-연계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의 운영 구조, 스타트업 지원·평가 등의 노하우와 네트워킹 방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통찰력 제고
- (방문일정) 2023. 11. 7.(화), 미국 버클리대학교 Bakar Labs
- (참석자) 총 28명
 - (연수단) 장익상 단장 외 26명
 - (면담자) Dr. Gino Segre (Managing Director)

② 기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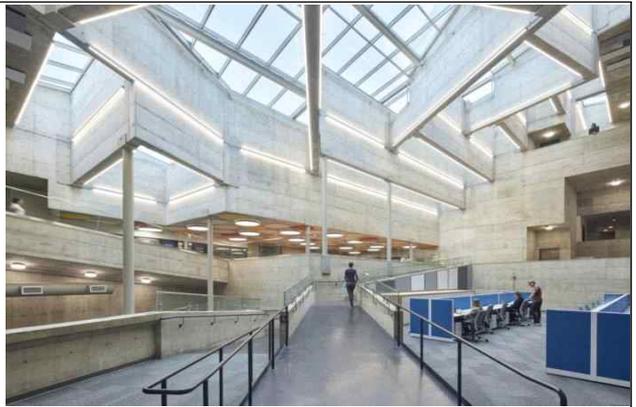
- (설립연도) 2021년~
- (구성) QB3(Quantitative Biosciences, UC Berkeley, UC San Francisco 및 UC Santa Cruz 3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의 지원 하에 기술자문전담 기구(Scientific Advisory Board) 23명과 연구실 전담관리인력 18명으로 운영
- (특징) 버클리 미술관(Berkeley Art Museum)과 퍼시픽 필름 아카이브(Pacific Film Archive)로 사용되던 공간을 학술 건물로 개조하여, 개방형 연구·사무실로 구성하고, 자연광과 밝은 채색 위주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스타트업 간의 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촉진하는 한편, 혁신을 장려하도록 배려
- (주요기능) 창의적인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 장비 및 관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로, 전담 관리자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주요 논의내용

- 수용가능한 스타트업 수와 직원 규모
 - 최대 30여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상주할 수 있으며, 평균 9명 정도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5명도 존재함.
- 동일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교류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기술 관련 분쟁 등 우려 등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개별 연구실로 운영되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음.
 - 납 중독시 납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력하여 해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정부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을 받기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욱 크다고 생각함.
- 바이엘 같은 대기업이 Bakar Labs과 협업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원하는 이유
 - 특정한 이득과 보상 보다는 스타트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사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 스타트업 선별과 지원, 평가방식
 - 입주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과 의제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발표과정을 통해 기술자문전담 기구에서 인정을 받아야 함.
 - 입주한 스타트업은 원하는 형태의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심 분야에 대한 제반 정보들(기업운영, 기술자문 등)과 관련 장비 지원, 노벨상 수상자 등 유수의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제공됨.
 - 스타트업이 일정 정도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Bakar Labs는 해당 기간 동안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방침

- 다만, 입주 스타트업은 매달 발표를 통한 스타트업별 평가와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팀, 기술, 데이터, 계획)를 중심으로 논의함.
 - ① 스타트업을 이끌 수 있는 팀 구성인지
 - ② Risky하고 Earlier한 기술인지
 - ③ 해당기술과 그 지향점을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
 - ④ 향후 2년간* 스타트업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 * 설립 이후 지원 경험을 토대로 2년을 분기점으로 스타트업이 추가적인 펀딩을 유치하여 크게 성장하거나 좌절하는 사례가 확인됨
- 현재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특징
 - 스타트업은 매우 Risky한 분야로, 현재 입주한 스타트업도 5년 후면 3분의 1은 사라질 것임. 코로나 등 현안으로 인해 신약 관련 스타트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차차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UC버클리 Bakar Labs 방문현장>



① 방문개요

- (방문목적) 한국학 연구소의 운영과정과 지역기여 방식,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현지 인식, 한국학 연구소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연구교류·확산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사항 발굴
- (방문일정) 2023. 11. 9.(목), 미국 USC 한국학연구소
- (참석자) 총 28명
 - (연수단) 장익상 단장 외 26명
 - (면담자) Gloria Koo (Associate Director)

② 기관소개

- (설립연도) 2005년~
- (구성) 현재 David Kang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소장 포함 3명의 직원이 근무 중
- (운영) 미국 내 50개 이상의 대학원 및 학부와 제휴하고 있으며, 4개의 한국학 교수진과 함께 한국학 과정 운영 중으로, 학교의 지원 없이 전액 기부금을 통하여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 (특징)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미국 내 거점 지역으로, USC가 가족이 살던 곳을 구입·개조·이전하여 한국학 연구소로 활용 중
- (주요기능) 학술연구를 통한 한국의 모습 전파,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이해 증진 도모 등
 - 한국학 관련 장학금 지원 및 학습센터 운영, 한국영화 상영회, 한국학 강연시리즈 등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 관련 유튜브 강좌 개설·운영 중

③ 주요 논의내용

- ‘한국학’의 정의
 - 한국학 연구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한국’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여 관련 지식 전반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해 필요
- 미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인식, 재미한국인과 한국학 연구소
 - 해외의 한국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 시기 전후와 맞물려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이 증가한 영향으로 파악되나,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은 K-pop, 한국음식, 한국드라마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
 - 이는 이민세대인 재미한국인에게도 동일한 부분이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국이라는 뿌리가 열린 상황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한국학 수요의 증가가 LA 내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게 된 배경
- USC한국학 연구소만의 특징
 - 대학원생 대상 멘토링을 통해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개별적인 연구 경험을 쌓도록 지원 중
 - 학부생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한국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문적 성장과 경험, 관심도를 제고 중
 - 박사 후 과정생과 연계하여 한국 파견 연구 지원, 논문 지도, 미시간 대학교와의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 중
 - 우수 학부생 선발 후 한국학의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에게는 뿌리를 잊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학생들에게는 K-pop이나 한국 음식 이외에 정치·경제·사회·역사 등 다양한 이슈에도 관심을 갖도록 지원 중
- USC한국학 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
 - ‘미시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학부 수준에서 한국 및 한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며 가장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임.

- '미국-아시아 전략 박사 장학생' 선발사업은 아시아 및 미국 외교정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계획을 가진 신진학자를 발굴·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대학원 심포지엄'은 한국, 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민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는 박사과정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미국-한국 NextGen 학자' 지원사업은 미국 동부 CSIS(Prof. Victor Cha)와 협력하여 미국 내 다음 세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추가적인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최근 한국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찾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가능하다면 한국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운영하고자 하나, 한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학을 통한 지한파 양성과 정책제언
 - 정책소통 및 결정 지원을 위한 하나의 채널로서 한국학 연구소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미국 내 한국학 연구소의 위상과 운영 규모, 관련 전공분야가 한정적인 상황도 고려 필요
 - 미국 언론에서 북한 문제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있을 때 한국의 시각과 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학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있으나, 전공분야의 제약으로 인해 전문적이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지 경우도 있음.
 - LA의 경우, 한인 사회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정치색을 가진 시민단체가 존재하며, 한국학연구소와 협력하여 한인사회와 한국과 관련된 정책 제언 등을 준비하고자 하는 제안이 종종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국학연구소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노력 중

<USC 한국학연구소 방문현장>



① 방문개요

- (방문목적) 한국-태평양 연구 분야 석학인
- (방문일정) 2023. 11. 10.(금),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학 연구실
- (참석자) 총 28명
 - (연수단) 장익상 단장 외 26명
 - (면담자) Prof. Stephan Haggard

② 면담자 소개

- (약력) 버클리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하버드대학교 정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UCSD)의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에서 Korea-Pacific Studies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에서 연구 수행 중
- (연구분야) 국제 정치와 경제, 동아시아 정치 및 경제, 미국과 국제 조직간의 관계, 국제 정치 이론
 - 최고의 한국학 학자이자 선구자로, 한국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치, 외교, 북핵 관련 연구 등을 왕성히 수행하며 많은 우수한 석박사급 연구자를 배출하는 데 기여
 -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적인 사회과학 연구로 저명한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의 에디터로 활동

③ 주요 논의내용

○ 한국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과제

-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이며,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선진국이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류'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단순히 북핵문제나 미·일관계에 집중하는 외교정책보다는 더욱더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교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고도성장이 끝난 후 약화되는 성장잠재력과 0.7%까지 떨어진 출산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가파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이민정책, 노령화 인구 증가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 북한과의 외교정책을 논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반도의 통일방식과 가능성

- 독일이 통일된 시점에 서독의 경제력은 동독의 3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 수준으로, 너무 큰 경제격차를 고려할 때 독일과 같은 모델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함.
-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문화적 차이도 커서 현재 약 35,000명의 탈북민을 수용하는 문제로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통일을 하게 될 경우, 2,600만명의 북한 인구를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하면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통일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통일 이전 단계로써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교류정책 또는 사업이 선행됨으로써 Detente(긴장완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의 국제정세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미동맹의 성격과 의미, 한국 외교

- 국가간 동맹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됨. 2023년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권의 국가들과 동맹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동맹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화당은 우호적이지 않고,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 있는 상황임.
- 전쟁의 당사자였던 남북한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일본·중국과 협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신뢰에 기반을 둔 외교는 아님. 때로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특정한 외교정책에 동일한 기초를 가지도록 제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 미군과 미국 내 한인사회, 유학생들 등이 동맹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단편적인 국제정세만을 본다면 동맹 관계가 회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신뢰를 강화하는 내재적 요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다만, 현재 한국이 실현하여야 하는 이상적인 대외정책은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우선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동맹관계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이미 러시아보다 GDP도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단순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노선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한국은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외교노선 설정이 도전과제가 되는 상황이며, 통상에 관해 특정 노선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음.
 - * 중국이 발표한 5대 응당과제와 이를 전제하는 외교적 무례함을 고려할 때, 한국은 막연히 미국을 따르기보다는 차이나리스크를 견제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주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한국은 더 이상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받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이며, 한국이 이룬 독자적인 발전 성과와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음.
- *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체계는 전세계에 귀감이 되었고,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통신 등을 활용한 바이러스 대응이 주목을 받은 바 있음.
- 미국이 동맹국을 선정할 때는 그 국가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한국도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를 할 때 그 나라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깊게 고려해야 함.
-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미국의 시각
 -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최우선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임. 미국은 그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 바 있음. 다만, 가능성도 기대도 가장 높았던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는 양측 모두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양보를 고려하지 않고 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임.
 - 결국 어느 하나의 커다란 양보 없이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며, 현재의 교착상태에서의 유일한 정책은 북한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임.
 - 사실 각국의 외교정책이 맞물리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때는 깊은 고민이 필요함.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했던 미국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는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의가 파행을 거듭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국제정책이 전통적인 노선으로 회귀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 백악관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에 너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도 성과가 있지는 못했음. 따라서 한국의 진보 정부가 취했던 대북정책을 온건하게 비판하는 한편, 보수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을지 여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짜뉴스 대응과 연구기관의 역할

-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문화가 기여하게 된 바탕에는 유튜브로 대변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의 매체 등이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급격하게 형성되는 여론과 양산되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함.
- 정부는 정부가 취하려는 정책을 국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정책을 다루는 연구기관은 사회관계망(SNS)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 미디어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전달을 위한 규제, 잘못된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함. 이에 따라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SNS 플랫폼에 참여하고 국민들과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음. 대만은, NGO를 활용하여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거짓 정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 중

○ UC 샌디에이고 대학원 및 교수님과의 협력 방안

- 국제관계정책대학원에서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석사 과정, 1년)을 진행 중
 - * 5년의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이 되고 협력연구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채널을 통해 연락할 수 있으며, 주제에 따라 3개월짜리 단기 연구도 가능
- 내년에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기회가 되는 경우, 정책연구기관과의 다양한 연구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당부

※ Vetran's Day(미국 현충일, 공휴일)임에도 면담을 위해 출근하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Prof. Steph Haggard 와의 면담현장>



① 정치·경제·사회 주요 현안 관련

- (경제) 대선 전후 미국의 기준금리 하향 가능성
- (통일·외교) ‘한류’의 영향력을 활용한 다자외교 전개의 필요성, 통일 이후의 사회문화적 토대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
- (사회)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성차별 해소,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

②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확산 관련

-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 한국에 관한 관심 증대로,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 내 한국전문가풀이 적어 해당 관심이 다양한 형태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음.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대학 내 방문학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국 경제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연구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정부기조와 연계하여 연구기관별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학술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모색 필요
 - 연구회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교육훈련 기관 선정시 대학 등의 한국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관계기관 풀을 확대하여 연구기관 안식년 제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성과확산 다변화 관련
 - 한국 및 한국에 관한 내용이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나 정책방향 등도 함께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와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정책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기관별 SNS 운영 등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성과확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소규모 홍보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과 연구분야 특성상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콘텐츠 발굴이 어려운 점, 국민적 관심 및 접근성 부족 등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 대만 NGO의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에 대한 사례조사도 병행 필요

③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

- 한국학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미국 내 이주한인과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으로, 최근에는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 외에도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이며, 유사하지만 이질적인 두 집단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한과 양성이라는 목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 프로그램 운영시 유의 필요
- * 미국 내 거주한인이 200만명이 넘고,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주에서는 한인사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가진 집단으로 성장 중
- KDI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 관련 프로그램은 워싱턴 등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도 정책입안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석·박사과정) 등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학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명확하도록 관리·운영 필요

④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운영 관련

- 중장기 연구과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명확한 체계가 없는 상황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 매 1년마다 예산과 연계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사실상 단년도 과제처럼 관리 중
- *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내 중장기 연구과제 :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
- '22년도부터 협동연구과제에 중장기과제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관리 과정에서는 매년도 수요조사시 사업계획서를 신규로 받고, 연차별 계획을 참고하여 단년도 과제로 편성·운영 중
- 연구기관 수탁연구과제는 발주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년 정도 중장기과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

- Bakar labs가 스타트업 특성에 맞게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중장기과제 관리 체계와 접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과제별 자문조직의 구성과 단계별 계획을 점검하는 관리 인력의 배치, 중장기과제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 연구사례 발굴, 노하우 축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
- 협동연구과제 내 종합연구기관을 통한 기획·관리방식을 해당모델과 연계하여 체계화하면, 중장기과제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연구과정에서의 실패나 오류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과 사례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Bakar labs의 경우, 얼핏 기업 등의 기부금을 통하여 운영됨에 따라 출연연보다 실패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Bakar labs 설립 이전의 대학 차원에서 충분히 운영모델에 관한 논의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학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패사례를 토대로 스타트업 관리·운영 방식을 체득한 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